

“물 소중함·환경보호 중요성 알리겠다”

공아현 물사랑총연합전남광주특별시 총재취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물의 소중함,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열린 한반도물사랑총연합 전남광주특별시 총재 이·취임식에서 새롭게 취임한 공아현 총재는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지역 여성 CEO로 활동 중인 공 총재는 친환경 에너지와 무인화 시스템 분야에서 활발한 사업 활동을 이어가며 지역사회 환경보호 실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공 총재는 태양광사업 전문기업인 ‘아현테크’를 운영하며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입지를 다져왔다.

특히 ATM, 무인주차시스템, 키오스크(KIOSK), 전자 총정기, CCTV 등 무인화 시스템 운영관리 전문기업인 나이스인프라㈜ 제휴에 이진사로 다양한 스마트 인프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 태양광사업과 무인화 시스템

태양광 ‘아현테크’ 운영...친환경 관심

하천 정화·물 사랑 실천 등 적극 추진

전국 226개 지회 협력 탄소중립 앞장

사업을 연계해 친환경 미래산업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평소 지역사회와 환경 문제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온 공 총재는 이번 취임을 계기로 환경보호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 총재는 취임사를 통해 “전국 조직의 협력과 화합을 바탕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및 생태계 보호 활동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환경운동을 통해 깨끗한 물과 건강한 자연환경을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경보호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만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하는

13일 오후 3시 장소: 광주향교



공아현(오른쪽) 한반도물사랑총연합 전남광주특별시 신임 총재가 임명패를 수여받고 있다.

공동의 과제”라며 “하천 환경정화 활동과 물 사랑 실천운동, 환경보호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주민 참여형 환경교육 활동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이면 지역 환경

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주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환경보호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환경 의식을 높이고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자연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 총재는 끝으로 “환경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전국 조직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운동을 통해 깨끗한 물과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한반도물사랑총연합은 전국 조직을 기반으로 다양한 환경보호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환경단체다. 2021년 12월 7일 창립된 이후 물의 소중함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캠페인과 생태계 보전 활동, 환경정화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현재 전국 17개 지역총재단과 226개 시·군·구 지회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환경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하천 정화 활동과 환경교육,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등 생활 밀착형 환경보호 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다.

/안태호 기자



광주북구가족센터, 가정의 달 ‘가족운동회’ 성황

광주북구가족센터는 “최근 운암북합문화체육센터 2층 체육관에서 북구 지역 가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족운동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온가족보듬사업과 연계해 가족 유대감을 높이고 건강한 가족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는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함께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과 돌림판 이벤트 부스

등이 운영돼 참여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어 진행된 운동회에서는 파도타기, 에어볼 릴레이, 기차놀이 등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협동게임이 펼쳐졌다.

노효경 북구가족센터장은 “가족들이 함께 소통하면서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가족 삶에 행복을 더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윤찬용 기자

광주환경공단, 분노수거·운반업체 직원 감사 행사

광주환경공단은 “최근 분노수거·운반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사행사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행사는 이른 더위 속에서도 도시의 위생을 위해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분노수거업체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구 치평동 소재 광주환경공단 위생처리장 반입장에서 진행됐다.

행사에는 11개 분노업체 소속 차량 3대의 차량, 직원 60여명이 참여했다.

공단은 분노수거·운반업체 직원들의 업무에 로사향을 청취하고 향후 분노 반입 계획을 공유했으며,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간식을 전달했다.

김병수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행사는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분노를 수거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분노 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중 위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수희 기자

담양 배사모, 봉산면 취약계층 생필품 전달

담양 봉사단체 베푸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배사모)은 “최근 봉산면 지원 대상 107가구에 10만 원 상당의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꾸러미에는 쌀과 라면, 생수 등 생활필수품이 담겼으며 회원들이 직접 준비해 전달했다.

배사모는 2024년 11월 결성 후 현재 3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꾸준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매월 12개 읍·면의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오는 6월에도 봉산면 10가구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용찬 배사모 회장은 “회원들과 후원인들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만큼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



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재현 봉산면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주고 있는 배사모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전남도, 나주서 ‘여름철 식중독 예방 캠페인’

전남도는 식품안전주간(5월18-31일)을 맞아 19일 나주목사교회를 시작으로 도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은 최근 기온 상승과 큰 일교차로 세균 번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진행된다.

전남도는 ‘언제나 식중독 예방, 부정·불량식품 근절 함께해요!’를 슬로건으로 오는 31일까지 시·군, 유관기관과 함께 식중독 예방 캠페인을 집중 추진한다.

캠페인에는 전남도, 나주시보건소, 한국외식

업중앙회 전남지회·나주시지회 등이 참여해 식중독 예방수칙 리플릿을 배부하고 여름철 위생 관리의 중요성을 안내했다.

행사장 홍보 부스에선 ▲부각식 활용 손 씻기 체험 ▲대1 맞춤형 식중독 예방 교육·컨설팅 ▲위생용품 전시·체험 등이 이뤄졌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캠페인을 통해 음식점 종사자와 도민이 식재료 보관, 조리 위생수칙 등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길 바란다”며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손 씻기, 안전한 식수 사용, 음식 충분히 익히기, 조리 후 신속한 섭취 등 기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정 기자

광주기독병원, 소방과 ‘중증응급환자 이송’ 협력 강화

광주기독병원은 최근 ‘2026년 중증응급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 사업 원외 협의체’를 개최하고 남부·동부·북부소방서와 중증응급환자 이송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의체는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의 현장 의견을 공유하고 병원과 소방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광주기독병원 공공의료본부 및 응급센터 관계자와 각 소방서 지휘관·구급대원 등이 참석해 중증응급환자 이송 과정의 애로사



향과 개선방안, 응급환자 수용 및 신속한 진료 연계체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병원과 소방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 필요성에 공감했다.

/기수희 기자

동강대, 스승의 날 유공자·우수 교원 표창

동강대가 ‘스승의 날’ 유공자와 수업 평가 우수 교원을 격려했다.

19일 동강대학교에 따르면 전날 교내 본관 1층 총장실에서 ‘제45회 스승의 날’ 유공 교원 정부포상 표창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송정석 건축학과 교수와 이봉선 글로벌외식 조리제빵과 교수, 정병의 AI융합전기와 교수가 교육부장관상을 받았다.

수업 평가 최우수 교원에는 윤민열 간호학과 교수가 선정됐으며, 학과 계열별로 류영환 방사선학과 교수, 송정석 건축학과 교수, 정주선 유아교육학과 교수, 이순영 K-뷰티아트과 교수,



오혜중 임상병리학과 교수, 윤혜경 사회복지과 교수 등이 표창을 받았다.

/박선욱 기자

이정호 동신대 K-남도문화학과 교수 제1대 국가유산총 분과위원장 위촉



동신대학교는 19일 “이정호(사진) K-남도문화학과 교수가 국가유산총 제1대 국가유산위원회 매장유산분과위원장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위원회는 올해 통합 출범한 국가유산청 산하 최고 자문기구로, 건축문화유산·매장유산·사적 등 총 12개 분과로 구성돼 있다.

국가지정(등록)유산의 지정과 해제, 매장유산 발굴, 역사문화환경 보호, 세계유산 등재 등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주요 정책과 현안을 심의·조사한다.

이정호 교수는 오랜 기간 문화유산 연구와 보존·관리 분야에서 활동하며 국내 문화유산 정책과 학술발전에 기여해 온 전문가다.

앞으로 국가유산위원회 매장유산분과위원장으로서는 매장유산 발굴 허가와 보존 조치, 조사 및 정비방향 설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심의와 정책자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정호 교수는 “국가유산청과 함께 문화유산의 조사와 보존은 물론 체계적인 정비와 활용 방안을 마련해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지키고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이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욱 기자

이재홍 조선대 무역학과 교수 스승의날 유공 교육부장관 표창



조선대학교는 “최근 이재홍(사진) 무역학과 교수”가 스승의날을 맞아 ‘유공교원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재홍 교수는 대학 교육 현장에서 후학 양성과 전문 인재 배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인재양성 분야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 교수는 재직 기간 동안 논문 186편, 학술발표 104편, 저서 19편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연구 성과를 창출하며 학문 발전에 기여해 왔다. 특히 SSCI 및 KCI 등재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하고 국제·산학협력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연구 경쟁력 강화에 힘써왔다.

이재홍 교수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스스로 꿈을 개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교수가 되겠다”고 말했다.

/박선욱 기자



광주여대 물리치료학과, 재할 실무 특강

광주여자대학교는 “최근 물리치료학과 정보통신관 강의실에서 광주·전남 지역 물리치료학과와 작업치료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을 위한 Bobath(보바스) 특강’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전남 지역 재학생 110여명이 참여한 이번 특강은 신경계 재활 분야의 임상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학생들의 실무 역량과 진료 탐색 능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광주여대 RISE사업단의 ‘광주형 로컬커스터마이징 청년혁신인재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됐으며, AI·메디컬헬스케어 분야의 웰니스 실무 역량 강화와 지역 정주형 혁신인재 양성을 목표로 진행됐다.

특강은 한국보사협회 광주전남시도회 주관으로 조선대학교 호남권역재활병원 백영달 치료사를 초청해 신경계 재활 분야에서의 임상 적용 방법, 실제 치료 사례 등을 알아봤다.

/박선욱 기자

본사소남

▲이창호 광주지법중앙청장